

3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광양



얼었던 흙이 부드러워지고 꽃망울이 툭툭 터지는 3월, 겨우내 닫혔던 마음을 두드리며 설렘을 선사하는 국내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어디일까. 재잘대는 섬진강 물소리 따라 경쾌하고 화

사한 꽃의 알츠를 펼치는 광양은 3월 국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색이 없다. 특히,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여행지로 꼽히는 광양매화마을은 겨우내 황량했던 산비탈을 향기로운 매화로 곱게 수

광양매화마을, 매화로 수놓으며 방문객 탄성 정철·박제가·김시습 등 시 골목 돌에 새겨져

놓으며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봄으로 채색한 듯 화사하게 번지는 꽃잎도 아름답지만 단아한 초가지붕, 운치 있는 정자, 푸른 대숲이 조화로운 꽃 대궐을 이루며 고향의 봄처럼 아늑하고 편안하다. 꽃향기에 취해 산비탈을 오르다 거친 호흡을 멈추고 뒤돌아서면 평화롭게 흘러가는 섬진강이 어머니처럼 넉넉하게 품어준다. 골목처럼 요리조리 열린 꽃길을 마음 가는 대로 거닐다 보면 정철, 박제가, 김시습 등 시인 목격이 남긴 시들이 희미하게 돌에 새겨져 오래도록 발길을 붙잡는다. 무엇보다 스물셋에 섬진강변으로 시집와 온 산의 밤나무를 베어 내고 지금의 청매실 농원을 일궈낸 홍성리 명인의 살아있는 이

야기는 뜨거운 감동을 준다. 낮에는 흙을 일구고 밤에는 시를 쓰는 홍성리 명인의 섬세한 감성과 열정은 해마다 봄이면 백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불러 모으는 생명 공간의 원천이다. 광양매화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콤달콤한 매실아이스크림은 상큼한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3월은 인디언들의 달력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달, 한결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달이라고 표현될 만큼 만물이 생동하고 변화하는 생명의 달이다"며, "3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곱디고운 매화가 온 산에 곱게 피어나는 광양이다"고 강조했다. 광양=심종섭기자



녹차수도 보성, 카페에서 특별한 차(茶) 문화 즐긴다

관내 64개 차판매업소에 차 도구 지원

녹차수도 보성군이 보성만의 차별화된 카페 문화를 만들고자 차(茶) 판매 업소에 차 도구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차 음료 판매업소(64개소)이며, 카페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차 도구를 갖춘 고급 녹차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 업체다. 지원 규모는 업체 당 100만 원 한도에서 70%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며, 다관(차 우리는 주전자), 속우(차물 식히는 그릇), 찻잔, 보온병, 찻잔 받침 등의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카페)는 3월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 도구 판매 및 공급업체는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통해 3개 업체(다도락, 해음도에공방, ㈜차모아)가 선정됐다. 3~6만 원대 가격에서 2인~5인 세트까지 전통적인 다구와 현대적인 디자인의 다구까지 총 6종으로 구성 돼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 프로그램 본격 추진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질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유아들이 직접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지성·감정·의지를 두루 갖춘 수 있는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숲해설과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 위탁사업을 3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숲과 유아교육 전문가인 유아숲지도사를 순천시 봉화산과 화순군 알프스(유천리)에 각각 3명씩 배치하여 유아들에게 다양한 산림현장교육프로그램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동영상 및 실시간 숲 체험을 통해 안전한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

다. 또한, 숲해설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연령대가 참여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숲을 찾아오기 어려운 소외계층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생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매년 증가한 만큼, 국민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림교육 프로그램 신청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지원팀(☎061-740-9333)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2050 탄소중립 "나부터 실천해요"

공공기관 생활 속 탄소중립 릴레이 캠페인 전개

여수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탄소중립 실천운동 릴레이 캠페인'을 지난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서별로 탄소중립 생활수칙 10가지 중 4가지를 지정하고 전 직원이 실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14일에는 탄소중립 주관 부서인 환경복지국에서 ▲일회용품 대신 대화용기 사용하기 ▲난방온도 2°C 낮추고 냉방온도 2°C 높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하기 ▲컴퓨터 절전기능 사용하기 등 4가지 생활수칙을

정하고 전 직원이 동참을 다짐했다. 시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캠페인 결과를 SNS에 공유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바로 지금, 나부터! 생활 속 탄소중립 수칙을 잘 실천한다면 2050 탄소중립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탄소중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생활 속 실천으로 앞장서겠다" 전했다. 여수=오상호기자

고흥군, 남양면 선정항

어촌뉴딜 사업 준공식

고흥군은 14일, 송기군 군수, 선정마을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 남양면 어촌뉴딜사업 선정항' 준공식을 개최했다. 남양면 선정항은 지난 2018년도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뉴딜사업 선정되어 어촌뉴딜사업에는 3년간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해 △물체중고 △소파 부잔교 설치 △스크레인 설치 △안전시설 정비 △갯벌체험 관리센터 신축 △스카이워크 설치 △방파림 산책길 정비 등을 완료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성공모델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했다. 송기군 고흥군수는 "선정항 준공을 통해 어항 기능 복원, 어촌 환경 조성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어촌관광 활성화와 어촌재생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로 이어져 어민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머드타임 등 마을의 특색을 반영한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